

성악 초등부 이경은 충남대 교수

초등 이상의 기량... 안정적 호흡·리듬감 우수

초등 성악부는 어느 해보다 뜨거운 경연이었고 훌륭한 성악가의 가능성이 있는 꿈나무들이 눈에 띄게 많았다. 전체적으로 참가자들이 초등 이상의 기량을 선보였다. 호흡과 리듬이 안정적이었고 가사에도 대단히 충실한 표현력을 보여줬다.



1-2학년은 기본에 충실한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악보 자체에 있는 음정, 박자, 리듬, 가사 등 기본에 충실해도 충분하다. 3-4학년은 아름다운 목소리와 탁월한 감수성을 가지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가사를 읊미하는 참가자들이 눈에 띄었다. 5-6학년은 안정적 호흡과 리듬감 등 대체적으로 우수한 기량을 보이는 참가자들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남녀 모두 변성기에 들어선 참가자들의 경우 자신에게 맞지 않는 곡 선택으로 성대를 무리하게 사용해 허스키한 소리와 음이탈 현상이 나타나 안타까웠다. 또 일부 지도자의 정형화된 지도로 인해 경연자들의 손짓과 얼굴의 움직임이 거의 똑같아 아쉬웠다.

현악 김시내 수원대 교수

초등부 성과·기량 탁월... 중·고등부는 아쉬움

64년 역사의 호남예술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처럼 역사와 전통 있는 예술제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돼 개인적으로도 뜻 깊은 시간이었다.



호남예술제의 명성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의 정성 어린 연주를 듣는 것은 설레고 행복한 경험이었다.

특히 초등부 학생들의 수준은 상당히 정도여서 듣는 내내 내심 깜짝 놀라는 순간들이 많았다. 다만 초등부의 탁월한 성과와 기량이 중·고등부까지 그대로 이어지지 못한 느낌이라 아쉬웠다.

대회를 위해 준비하느라 오랜 시간 애썼을 학생들, 그리고 그 학생들 옆에서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줬을 선생님과 부모님, 반주자들에게 진심어린 박수를 보내고 싶다. 부디 이 대회를 위해 학생들이 기울인 노력들이 그대로 체화돼 장래에 보다 훌륭한 음악가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

한국무용 김미숙 조선대 교수

'음악·작품 주제·동작' 삼박자 조화 중요

한국 무용 창작의 경우 음악과 작품 주제, 동작 삼박자가 잘 맞아 아야 하는데 참가자 중에는 세 분야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 작품이 눈에 띄어 아쉬웠다. 특히 작품 주제에 맞는 음악 구성은 창작 작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이며 음악의 연결 또한 춤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 두가지가 잘 맞을 경우 학생들의 동작 표현도 조화를 이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밖에 작품에 적합한 소품 선정 역시 지도자들의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한국 무용 경연에 참여하는 초등부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들은 전통적인 작품보다는 나이에 맞는 발랄한 작품을 선택해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호남예술제는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호남지역 예술인들의 등용문 역할을 한 대회였다. 그러나 무용인구가 줄어들면서 매년 참가자도 많이 감소해 아쉬움이 남는다. 내년에는 더욱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관심으로 호남예술의 역사와 전통에 걸맞은 대회가 치러지길 기대한다.

국악 표윤미 전남도립국악단

보석같은 경연자들, 국악 미래 밝아

국악 꿈나무들의 등용문인 전통의 호남예술제에서는 사물놀이, 가야금창작, 가야금병창, 기악 등 다양한 장르가 펼쳐졌다.



기량적인 부분에선 다소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보석 같은 경연자들도 있어 예술제의 의미를 생각하게 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작은 몸짓으로 제한된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실력을 발휘 한다는게 쉬운 일은 아니다. 긴장되고 떨리는 무대였지만 나름 최선을 다하는 출연자들의 모습에서 우리 국악의 밝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다.

다만, 창작곡에 비해 연륜과 공력을 요할 수 있는 전통 독주곡(기악, 가야금병창) 연주의 비중이 적어 아쉬움이 남는다. 국악 발전과 호남예술 도약을 위해 현장에서 지도를 하시는 선생님들의 연구와 관심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꿈나무들이 더 나은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미술 강남구 서양화가

창의력·표현력 발전... 공간 구성 탁월

학생들의 창의력과 표현의 영역이 갈수록 발전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심사위원 모두가 참가자들의 작품에 공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심사에 임했다. 초등부는 어린이들의 순수한 동심이 잘 표현되고 너무 기초적이지만 열정을 가진 작품들을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전체 화면의 구성과 함께 감정 표현력이 풍부하지 않다는 것도 심사 포인트였다.



초등부 저·중·고 학년 작품들은 공모 주제인 자유로운 놀이공원의 즐거움을 묘사한 출품작 가운데 공간 구성이 탁월한 작품과 만화적인 상상력, 여행의 즐거움이 가득한 작품들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학생답지 않은 작품과 가필의 흔적들이 있는 작품보다는 어린이다운 순수함이 담기고 개성과 창의력이 묻어나는 작품들을 수상작에 올렸다. 중등부는 시간과 대상을 밀도있게 묘사한 풍경 작품을, 고등부는 여백을 투명하게 살린 작품을 선정했다. 여백과 감성이 절실한 요즘, 대회에 참가해 많은 노력을 해준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성악 중·고등부 박미애 광주대 교수

성장에 따른 다양한 목소리 흥미로워

중등부 경연은 학생들의 신체 발육상태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를 만날 수 있어 흥미로웠다. 변성이 된지 얼마 안 돼 약한 두성 소리로 노래할 수밖에 없는 학생, 몇 년 사이에 안정적인 변성기를 넘겨 완성된 두성 발성으로 바뀐 학생, 초등생처럼 작은 몸집으로 육성을 사용하며 높은 음역대의 노래를 그대로 진성으로 노래해 소리가 뒤집히는 학생, 보이 소프라노로 맑은 여성의 목소리를 구사해 카운터 테너로서의 역량을 보여준 학생 등 목소리의 결이 다채로웠다.



고등부는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고난도 아리아를 불러 호흡조절이 잘 되지 않은 탓에 수준미달의 테크닉을 보인 경우가 있었다. 성량, 음색, 호흡조절, 디션, 소리의 초점과 공명의 적절한 조합, 서정적인 멜로디 라인, 곡의 표현력, 무대 매너, 곡의 적합성 등을 종합해 점수에 반영했는데 고등부에서 대상을 줄뒀던 좋은 목소리의 주인공이 눈에 띄지 않아 안타까웠다.

피아노 초등부 황미경 순천대 교수

각 곡에 알맞는 리듬·음색 등 조화 이뤄져야

이번 경연곡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지만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많은 준비를 해 좋은 연주를 보여줬다.



모차르트 '소나타 K.332' 3악장이나 멘델스존 '봄노래'의 경우 손가락이 아직 작아 연주자 불편함에도 잘 극복해 연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다만 템포를 너무 빠르게 연주하려고 하다 보니 음들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음악적 표현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고 멘델스존 곡은 멜로디 선율이 좀 더 두드러지고 코드 진행할 때 너무 때리지 않도록 힘 조절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베토벤 변주곡은 비교적 음악의 흐름이 좋았고 각 변주별 특징을 표현했으나, 테마 연주 시 몇몇 연주에서는 페달을 사용하지 않아 화음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다. 각 곡에 알맞는 템포와 테크닉, 악상, 리듬, 박자, 음색, 힘 조절, 페달, 양손의 균형, 호흡 등 여러 요소들이 조화를 이룰 때 더욱 좋은 연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대·실용무용 여순심 광주여대 교수

작품 색깔 마음껏 표현... 군무진 작품성 돋보여

64회라는 긴 시간 동안 호남예술제가 광주 지역에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무용인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매년 창작무용 파트는 치열하게 경쟁해 왔는데 올해 대회에서 현대무용과 실용무용이 함께 한 경연장은 열기로 가득했다. 긴 시간 연습을 거듭한 만큼 참가자들의 실력은 출중했고 손끝 하나하나에 감정을 실어 표현하고자 하는 작품의 색깔을 마음껏 표현했다.

올해는 유난히 군무진들의 작품성이 돋보였다. 완벽한 테크닉, 박진감 넘치는 호흡과 감정 교감에 흐트러짐 없이 한편의 공연작품을 보는 듯했고 학생들의 맘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아쉬운 점이라면 실용무용, 특히 댄스스포츠 참가자가 저조했다는 점이다. 내년에는 실용무용 부문도 적극 홍보해 많은 학생들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경연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합창·중창 박호진 광주합창총연합회장

발성·곡 분석 등 미리 연구하고 준비할 것

합창을 할 때는 선생님의 지휘와 학생들의 소리가 곡의 특징을 잘 표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곡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지휘자는 늘 곡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휘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레가토 곡에서는 템포와 소리의 움직임을 조절해 긴장감을 조성해야 듣는 이가 감동을 느끼며 마르카토 음악은 호흡을 잘 조절해야 곡의 느낌이 살아난다. 대회를 할 때 더 어휘력이 좋은 사람이 있듯이 지휘의 어휘력이 좋아야 곡을 표현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지휘가 돋보인다.

합창곡은 학생들과 처음 접하는 시간부터 결과까지 모든 책임이 지휘자에게 있다. 그런 만큼 발성, 호흡, 곡 분석, 프레이징 등을 미리 연구하고 마음속에 그려 놓아야 한다. 올해는 초·중·고에서 합창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다. 내년 호남예술제에도 많은 학교에서 참여해 주길 바란다.

만화·일러스트 윤기현 부산대 교수

200여점 수준 높은 작품... 연출·스토리 인상적

이번 대회에는 칸만화, 캐릭터, 일러스트 분야로 나누어 '눈물'과 '광주, 무등산'을 주제로 200여점의 수준 높은 작품이 출품됐다. 학생들의 재기 넘치는 작품을 보며 수상작을 선정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고백한다. 먼저 최고 대상을 받은 작품은 눈물과 슬픔을 주제로 상당한 고도의 연출과 스토리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인상적이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해 훌륭한 스토리텔러, 혹은 작가가 되길 기원한다.



캐릭터 부문 수상작들은 일러스트가 갖는 묘미 즉, 각각의 캐릭터 성격과 특징을 잘 잡아 주었고 일러스트 부문에서는 우주선을 등장시킨 작품과 고양이 등 신선한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칸만화 부문에서 강아지를 잃은 소녀의 슬픔을 다룬 작품은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를 유려하게 풀어내 보고 읽는 맛을 느끼게 해주었다. 또한 '비정규직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은 학생답지 않은 세상공자와 아울러 독특한 선으로 심사위원들을 매료시켰다.

관악 노수한 안양대 교수

한음 한음 정교한 호흡... 잠재력 이끌어내길

심사를 보는 자리에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경연에서 한음 한음을 정교하게 호흡에 실어서 표현하려는 학생들의 정성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는 바가 많다. 한사람 한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이런 아름다운 노력들이 모여 우리나라 관악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고, 한국 음악의 발전에 이바지 할 초석들을 평가한다는 생각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신중한 자세로 심사에 임했다.



한 곡 한 곡 연주될 때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연주자가 흘린 땀과 눈물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서로 다른 연주자들이 서로 다른 곡들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연주자 각각의 장단을 잘 살려야 하는데, 이런 호흡을 위해 불철주야 지도한 선생님들의 노력이 있었으며 사랑과 정성으로 후원하는 부모님들의 사랑 역시 전해졌다. 학생들의 음악적인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평가하는 고귀한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한다.

피아노 중·고등부 박행숙 목포대 교수

악보 꼼꼼히 파악 후 자신의 음악으로 표현

심사를 마치고 참가자들에게 몇가지 조언을 하고 싶다.



첫째, 악보를 바르게 읽기 위해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 즉 박자, 리듬, 선율의 흐름 그리고 다이나믹까지도 있어 작곡자가 원하는 음악은 무엇인지 고민을 한번쯤 해보길 바란다.

둘째, 악보를 제대로 파악하고 읽은 후 자신의 음악을 표현해 줘야 한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음악 속에서의 호흡이다. 호흡이 제대로 된다면 적어도 급해지지 않았을 것이라 여겨진다.

셋째, 악곡의 적절한 템포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 무조건적인 빠른 템포는 무리한 연주 결과를 맞게 되고 그로 인해 음악이 전체적으로 망가지게 된다.

넷째, 페달을 적절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 페달은 피아노 음악을 약하게 하고, 음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잘못 사용했을 때는 어수선한 음이 표출되고 선율 프레이즈가 망가지며 진행되는 음들이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사용이 필요하다.

발레 이영애 무용협회 광주지회장

참가자 늘고 수준도 향상 '뿌듯'

해마다 무용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참여 인원이 적은 상황 속에서 꾸준히 무용 예술 공헌에 힘 써주시는 호남예술제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공구발레 분야는 다른 장르에 비해 많은 수가 참여했다. 특히 초등부 참가자가 늘어나고 수준 역시 예년보다 향상돼 앞으로 발레 분야의 희망을 느낄 수 있어 뿌듯했다.

단, 아직 경륜이 짧은 학생에게 무리한 토슈즈 훈련을 시키는 것은 성장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초등부 단계에서는 저·중·고로 나눠 연령과 신체 발달 수준에 맞는 훈련과 작품 선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

중등부 발레는 대체적으로 좋은 신체 조건과 기량이 뛰어난 학생들이 참여해 고른 수준을 선보였으며, 고등부 발레는 기량 차이가 많아 심사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좀 더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대에 맞는 변화를 통해 호남예술제의 명성이 더욱 빛나 긴 역사만큼 큰 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

합주·중주 김연주 초당대 교수

수준 높은 열띤 경연... '기본에 충실' 기억할 것

올해 호남예술제는 지난해에 비해 많은 합주단과 앙상블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벌였고 수준도 높았다.



관현악 합주 부문의 경우 바이올린·첼로 등 현악파트는 비교적 안정적인 연주를 보였으나 목관악기와 금관악기 파트는 음정이 다소 불안해 아쉬웠다. 타악기는 작품에 극적인 효과를 부여하며 인상적인 연주를 펼쳤다.

관악합주는 전반적으로 음정과 리듬은 좋았으나 악상 표현이 미흡했다. 음악 해석에 있어 악보에 충실하는 것은 기본이다. 악보에 적힌 빠르기말, 나타냄말, 셈여림표 등은 우리 일상 생활의 대화처럼 자연스러운 표현이 필요하다.

연주를 함께 있어 항상 주의하고 기억해야 할 점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합주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학업에 바쁜 시간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악보로 연주하는 등 집중적으로 열심히 연습한 흔적을 볼 수 있어 흐뭇했다.

작문 신중철 시인

문학적 형상화 고심 엿보여... 문학의 장래 밝을 것

응모작이 전반적으로 개성을 바탕으로 문학적 형상화를 고심한 흔적이 엿보였다. 구성 및 표현력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보였지만, 추후 훌륭한 작품들을 쓸 수 있는 저력을 느낄 수 있어 우리 문학의 장이 밝을 것으로 예견된다.



산문 부문에서 완성한 한 편의 글이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직간접적인 경험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해야 한다. 이 점을 고려해 초등부는 진솔한 동심이 드러나 감동을 준 작품 중 등장 표현력이 좋은 작품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중·고등부는 문학적 형상화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초등 저학년이 쓴 시는 발상이 돋보였다.

초등 고학년은 상상력이 급하게 줄었는데 쪼그라든 상상을 점령해버린 게 무엇인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았다. 비유나 생활의 이면을 드러내는 발상이 아쉬운 건 중학생의 문장도 다르지 않았다. 입대와 자가 아파트 사이를 가르는 담장 앞에 선 박규리의 시선은 서늘하다. 소유의 크기가 도덕의 높이를 대신하는 세태를 묵시한다.